

## 10 오피니언

### 사설

# 지역사회 기여, 결국 대학에도 '이득'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노력으로 확산세는 주춤하는 모양새지만, 이미 재 확산을 수차례 경험했기에 긴장을 늦출 수는 없다. 사회적 노력이면에 존재하는 또 다른 문제는 소상공인이다. 사람, 즉 소비자가 돌아다니지 않으니 돈이 둘지 않는 상황이다. 생계도 위협받고 있어 소상공인을 두고 '폐업률', '상업용 부동산 공실률' 등의 온갖 수치는 물론 '지역 경제가 위축됐다', '소상공인이 힘들다'는 내용의 보도도 쏟아졌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자,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는 '새희망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소상공인의 적자를 메우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으나 고통을 덜어내겠다는 행보다. 정부는 지난 5 월 소비 촉진을 위해 1차 긴급재

난지원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현재는 선별적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앞둔 상태다. 이 역시 코로나19로 우려되는 경기 침체를 완화하기 위함이었다.

우리대학 주변 상권도 어려운 형편이다. 코로나19 이전엔 유리한 입지 조건이었으나, 학교를 출입하는 유동인구가 줄어든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한 상인은 생계 까지 위협받는 상황을 두고 "죽고 싶어요"라는 심정을 밝힐 정도다. 과거 보도했던 '생협의 운영 난항'이 학교를 기준으로 내부 경제 문제라고 한다면,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외부 경제 문제인 셈이다. 당시 기사에서는 생협이 무너지면 그 자리를 프랜차이즈가 채워 학내 물가가 상승되는 상황을 우려했다. 소상공인 문제도 마찬가지다. 지역 상권이 무너지고 그 자리를 프랜차이즈가 채우게 되면, 대학 특성을 반영해 다소 저렴했

던 주변 물가도 획일적으로 책정된 프랜차이즈 물가를 따라 오르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예부터 대학과 지역사회는 공생하는 관계였다. 단순히 저렴한 물가가 형성과 대학생의 소비라는 경제적 차원이 아닌 문화적 차원에서도 그랬다. 회기동 앞 파전 골목의 두껍게 튀겨낸 듯한 파전 모양도 대학생 주머니 사정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저녁이 되면 학생들은 파전을 주로 찾게 되었고, 이러한 문화가 파전 골목 형성으로 이어진 것이다.

최근에도 대학은 지역 상권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캠퍼스타운조성사업단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등과 협력해 회기동 상인을 위해 낮은 대출 금리로 대출을 지원했다. 디지털콘텐츠학과 역시 '2020 경기도 골목상권 지역 대학 협업 프로젝트'를 통해 '서천동 상인회'와 연계, 지역 상권 자생력

강화를 위해 힘쓴다고 한다. 여전히 대학이 유무형의 지원을 제공하는 모습이다.

캠퍼스타운조성사업단이 밝힌 바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들의 목표는 '확장'이 아니라 '유지'라고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적극적인 방문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요즘이기에 이 시간이 무사히, 그리고 하루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것이다. 지역사회와의 공생을 위한 대학의 크고 작은 결실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대학과 대학 구성원의 소상공인을 위한 기여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어려운 시기에도 자리를 지키는 소상공인과 그들을 위하는 대학의 노력으로 코로나19라는 시련이 대학과 지역사회와의 공생 관계를 확인하고 발전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 만평이 있는 취재수첩 | 경희대 골목상권 현황

## 끝이 없는 구보

허지영 기자  
jy00224@khu.ac.kr

'가짜사나이'가 유튜브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유명 유튜버들이 특수부대 교육생이 되어 훈련을 체험하는 내용이다.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다. 더 강도 높은 훈련도 견뎌낸 교육생들이 '끝이 없는 구보' 훈련을 받던 중 줄줄이 포기 선언을 한 것이다. 훈련 종료시간을 공지 받지 못하고 무작정 걷고 뛰는 것을 반복해야만 했던 교육생들은 결국 지쳐 훈련 포기를 의미하는 종을 울리고 만다. 가장 마지막에 남은 교육생은 훈련 종료시간을 불과 '4분' 남겨놓고 종을 울렸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비대면 수업이 연장되었다. 자취생들은 방을 정리해 본가로 내려간지 오래다. 경희대 앞 골목은 점심시간에 북적이지 않게 되었다. 텅 빈 골목을 따라 들어간 가게

안에는 상인들의 한숨이 텅 빈 자만큼이나 들고 있었다.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취재를 위해 경희대 주변의 상인들을 인터뷰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다. 가게 정리를 진지하게 고민하던 상인들의 얼굴에는 희망보다 포기의 그늘이 짙어 보였다. 특정 가게의 문제가 아니라, 골목 상권 전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선지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면 "답답하다"는 하소연이 줄을 이었다.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찾아준 학생들이 정말 고맙다"고 말씀하시는 상인들에 위로를 줄 수 없어 돌아서는 발걸음이 무거웠다.

우리 모두는 끝이 보이지 않는 구보를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힘든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평생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얼마 안 가 코로나 사태를 딛고 친구들과 마주하는 날이 찾아올 것이라 믿는다. 경희대로와 학교 주변 상권도 다시금 시끌벅적해지는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포기하면 안 된다. 어쩌면 지금은 '종료 4분 전'일지도 모르기에.



만평 다시 북적일 그 날을 기다리며

교시 문화세계의 창조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

발행인 한준태 | 편집인 남윤재 | 편집장 김지원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서천동) Tel 031-201-3230~2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khunews>  
이메일 khunews@khu.ac.kr

제작 청솔디자인 | 인쇄 옴니피앤디

### 세시봉

## 당부의 말씀



김수혁 기자  
sherk@khu.ac.kr

최근 가장 뜨거운 관심을 불러모으고 있는 콘텐츠를 꼽으라면 '가짜사나이'가 빠질 수 없을 것이다. 유튜브 채널 '피지컬 갤러리'와 민간군사기업 'MUSAT(무사트)'가 공동제작하는 '가짜사나이'는 참가자들이 '해군특수전전단'의 훈련과정을 직접 체험한다는 콘셉트의 영상물이다. 지난 10월 1일 공개된 시즌 2의 첫 번째 에피소드는 현재 무려 1300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화제성을 입증했다.

뜨거운 반응과 별개로 지나친 가학성 등을 지적하는 의견도 많다. 이 역시 중요한 문제지만 '가짜사나이'를 바라보는 우려스러운 시선의 내용 전부는 아니다. 군대는 인간 존엄과 자유, 민주주의 같은 우리 사회의 기본 가치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를 위해 군대 안에서는 우리 헌법의 정신이 보장하는 시민의 권리가 제한·유보된다. 군대의 지상목표는 효율이고 계급에 따른 상명하복 체계에 따라 조직이 운영된다. 군대의 이런 예외성은 시민 대다수가 인정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필요악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병영의 문화가 군대 밖으로 스며드는 경우는 엄연히 경계해야 마땅하다. 이는 군인에 대한 사회의 존중과는 하등 무관하다. 시민사회에서 군의 논리와 양식이 작용한다면 이는 그 자체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군대의 존재의의를 무색하게 만들 뿐 아니라 오히려 공동체를 위한 군대의 노고 또한 허사로 돌리는 일이다. 군대의 예외성은 군대가 예외로 남아있을 때만 의미가 있다. 과민반응으로 보일지도 모르겠으나 우리는 이미 병영화된 사회문화가 빚어낸 어제와 오늘의 폐단을 무수히 알고 있지 않은가.

많은 사람이 봤다곤 해도 '가짜사나이'는 어디까지나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올라오는 영상물이다. 방송심의 대상도 아니며 내용이나 과급효과에 대해 제작진에게 도의적인 차원의 책임의식 이상을 요구하는 데도 한계가 분명하다. 그래서 결국 우려의 목소리는 보고 즐기는 이들을 향해 모두가 알고 있을 사실을 되새기는 당부가 될 수밖에는 없을 듯 하다.